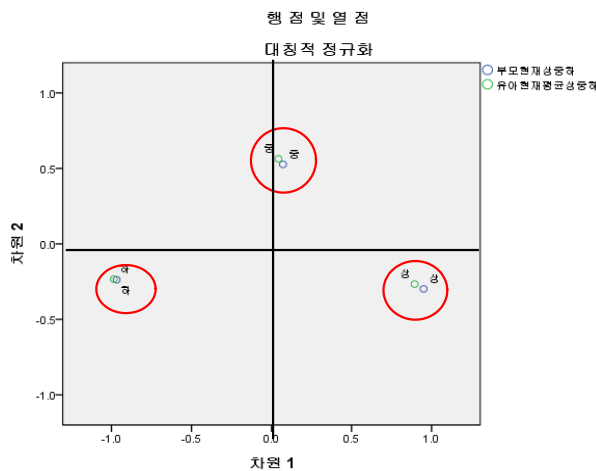


대응분석을 통한 유아의 행복과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 간의 관계

정 계 숙(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최 은 실(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연구원)
박 희 경(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수료)

본 연구는 유아와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 간의 대응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서구의 개인주의적 문화와 달리 집합주의 문화권인 우리나라(김명소, 한영석, 2006)의 유아와 그들의 어머니는 서로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타인이 된다. 따라서 유아의 행복과 어머니의 행복은 서로 관련이 있을 것이며, 이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유아와 그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행복에 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22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Alderfer(1972)의 생존, 관계, 성장이론에 근거하여 생존, 관계, 성장 3 영역을 틀로 하여 행복에 관련된 문헌 연구를 통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8요인을 선정한 후 9명의 전문가들이 내용타당도를 검토한 6점 Likert 척도의 어머니 행복 설문지 56문항과 어머니가 인식하는 자녀 행복 설문지 34문항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 계수는 .98과 .95로 나타났다. 수집된 자료는 상, 중, 하로 집단을 나누었으며, SPSS 18.0을 활용하여 X^2 검증을 실시한 후 대응분석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 고유 값 중 1차원에서 94.9%를 설명하고 있고, 2차원에서 5.1%를 설명하고 있어 2개의 차원에서 전체 고유 값의 100%를 설명하고 있다. 유아의 행복과 그들의 어머니의 행복 간의 대응분석도는 그림 1과 같다. 유아의 행복과 그들의 어머니의 행복 간에 대응관계를 보이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어머니 행복과 유아의 행복의 상 집단 간, 중 집단 간, 하 집단 간 대응관계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행복이 높을 경우 자녀의 행복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행복이 낮을 경우 자녀의 행복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유아의 행복과 그들의 어머니의 행복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유아와 그들의 어머니의 행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유아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1> 유아의 행복과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 간의 대응분석도